

나를 기억하소서

- 어느 강도의 기도 -

눅 23:32-43

서론:

- 각 사람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는 시기가 다르며, 영적인 성장과정도 각기 다름.
-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인생의 종말에 극적으로 구원받은 한 강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함.

A.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1.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
 - a. 롬 3:10, 3:23 모든 사람은 죄인임
 - b. 롬 6:23 죄의 삯은 사망
 - c. 벰전 2:24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
갈 3:13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창 3:18, 마 27:29)
 2.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롬 5:8, 엡 2:4-5) -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심
 3.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고후 5:21) - 사람들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 그 죄를 심판하심
 4.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시 85:10)
 - a.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진리는 모순되지 않음 -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 b. 의와 화평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님 -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 (*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는 강도들이 못 박힘. 막 15:28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됨 - 사 53:12 *)

B. 십자가의 강도들

1. 강도들의 대화에 대한 4 복음서 비교
 - a. 요한 - 강도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음
 - b. 마태 -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함(마 27:44)
 - c. 마가 -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함(막 15:32)
 - d. 누가 - 한 강도는 그분을 욕함(39 절), 다른 하나는 그 강도를 꾸짖음(눅 23:40)
2. 복음서의 차이에 대한 이해(synoptic problem)
 - a. 복음서마다 수신자와 기록 목적,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
 - i. 마태복음: 유대인들, 왕으로 오신 예수님
 - ii. 마가복음: 로마 사람들,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 iii. 누가복음: 데오빌로와 그리스 사람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 iv. 요한복음: 교회(믿는 자들)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소개

b. 누가복음의 특징

- i.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하고, 차례대로 기록(눅 1:3) - 하나님께서 누가의 지식, 경험, 스타일 등을 사용하심
- ii.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1. 눅 15 장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2. 눅 19 장 삭개오 - 예수님의 목표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는 것
 3. 눅 23:34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한 기도는 누가복음에만 있음
- iii.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힌 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함

C. 어느 강도의 믿음 고백

1.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함 - 41 절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
2.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심 - 40 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not 로마의 법 그 죄에 대한 정죄는 합당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41 절)
3. 예수님은 **무죄** - 41 절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직접 보았거나 전해 들었을 것이다.
4. 성경 본문 비교 (눅 23:42)
 - a. 개역: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흠정역: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 b. 예수는 유대인 남자의 이름, 주(Lord)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주인이심을 나타냄. 예수님은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가 되심.
 - c. 당신은 3 인칭일 때 극존칭, 2 인칭일 때에는 예사 낮춤말(평대), 강도는 세 번 예수님을 주라고 부름.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 (“주여 삼창”이 아님)
 - d. 나라는 온갖 종류의 국가제도를 포괄함(민주, 공산, 전제, 독재), 왕국은 **왕**이 다스림. 왕이 있어야 왕국이 세워지며, 왕이 누구냐에 따라 왕국의 성격이 달라짐.
 - e. ‘임하다’는 내려오다, 이루어지다의 뜻인데, 개역에는 누가 나라를 세우는지 주어가 없음. 그러나 강도는 그것이 주님의 왕국이며 주께서 세우고 통치하심을 믿음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에 왕으로 오실 때
5. 강도의 **믿음 고백** (인간, 죄, 예수 그리스도, 구원, 메시아 왕국, 최후 심판)
 - a.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믿었다.
 - b. 그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후에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도 믿었다.
 - c. 그는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믿었다.
 - d. 따라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3 번이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
행 2: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 e. 그는 마지막 날에 메시아 왕국이 땅 위에 세워질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왕국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었다.
- f. 그는 주님께서 능히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었다. “나를 기억하소서!”
- g. 주님께서는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43 절)

6. 그의 믿음 고백의 배경

- a.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 죄, 심판, 부활, 메시아에 대해 배움
- b.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지켜 보았을 가능성이 높음
강도는 주로 밤에 활동하고(요 1:5), 낮에는 대개 사람들 동향을 탐색하고 정보 수집
- c. 그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이다
- d. 죄인들의 용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누가복음에만 이 기도가 있고, 누가복음만 강도가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록함
- e.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가정교육, 전도자의 역할, 중보기도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임.

D.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1.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안 주셔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셔서? 강권적으로 내게 역사하지 않아서?
→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고, 또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안 주고 못 믿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선택이다.
2.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 사람들은 남의 죄는 잘 지적하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음.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나, 죄를 판단하는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없다. 자신의 죄를 알아야 주님을 찾게 된다.
3.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고,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은 후에는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히 9:27)
지옥과 천국은 사람의 내적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
4.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해 놓은 것이 없어서...
→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도 구원받았다
5.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쉽지 않느냐? (자기 의가 강한 사람)
→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사람들에게는 “오직 믿음”이라는 쉬운 길을 주셨다.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구원 받으려면” 선행을 하라, 성지순례를

하라, 고행을 하라, 연보를 바쳐라 등을 요구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그리고 다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대신 자기 공로를 자랑할 것이다.

6. 짧은 인생 즐길 것 다 즐기고 차차 믿겠다

→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지 아무도 모른다(세상의 종말). 또한 우리 각자 인생의 종말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개인의 종말).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사례: 암 병동에서 근무하던 어느 자매의 간증.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잠 27:1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E. 도전과 적용

1.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 교회에 다니고 있으나, 아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한다.

2. 우리 각 사람은 소중한 존재다.

막 8:36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현재 삶의 모습이 어떠하건, 무슨 중요한 문제나 걱정거리가 있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일단 살고 봐야 한다. 다른 건 미루더라도 일단 구원부터 받아야 한다.

3.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생각해 보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고, 특별히 내세울만한 것도 없고, 돌아보면 죄뿐이고, 후회와 탄식 뿐이다. 그래도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는 믿고 구원받아 불과 유향으로 타는 지옥 대신 주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

4. 구원 초청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신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 책임.

고후 6:2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5.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르짖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려야 한다.

6. 마음 속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동료들이 생각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루지 말고 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내일이면 너무 늦다.